

# 신영대 위원장, 국가예산 확보 역량 집중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 군산시와 공조체계 구축,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이 군산시와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에 따르면 신위원장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차질 없는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 최인호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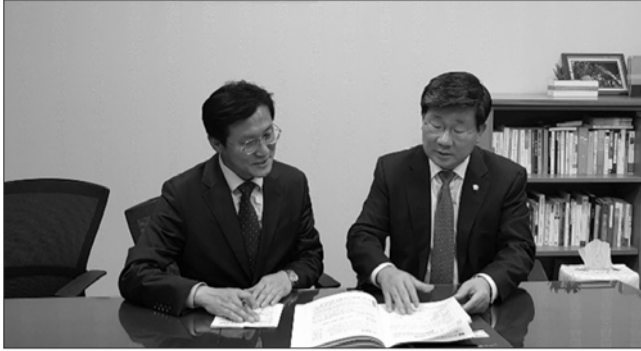
군산시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연속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할 것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로 추진 예정인 사업 예산들에 대해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조성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또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과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10만평 추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증액 건의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어청도 항로 노후 여객선 대체건조사업 등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시급함을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신영대 위원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국가예산이 원활하게 확보가 돼야 추진 예정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이 군산시와 함께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추진 예정인 사업 예산들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군산시와 공조해 각 사업별로 관련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관심을 보여주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과기부 국립전북과학관 유치 본격

## 군산시, 25일 군산대 산학협력단 이노테크홀서 세미나 개최

군산시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 전북과학관 유치를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와 관련 군산시와 군산대학교(총장 광병선)는 오는 25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층 이노테크홀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립전북과학관 건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제4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2019년~2023년)에 담겨진 국립과학관 건립 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부터 국립과학관 유치를 결정했다. 또 지난 4월 30일에는 금안동 73-3번지 내 5,656㎡ 토지를 매입 완료하는 등 144천㎡ 중앙동 도시재생지구내 총 3만여㎡ 부지를 대상으로 국립과학관 응모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유수창 전국생활과학교실 협의회 회장의 기초발표, 군

산대 김동익 링크사업단 단장, 고승기·곽장근·김동진·송석기·이장호·유현희 교수, 조선대 박영신교수, 호원대 장병권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역사적·지리적 당위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방안, 생활과학관·관광명소화 방안,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기관별 협력방안 등 분야별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가와 지역균형발전, 과학인프라의 효율적 구축,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원등 군산 건립의 타당성과 당위성이 큰 만큼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융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북도와 과기부에 전달하고 반드시 군산에 유치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보육환경 조성 행정력 집중

익산시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 출산 장려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민선 7기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무상보육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대 시행된다.

설치 희망 어린이집에 한해 1곳당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정수기 등 비품지원으로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간식비 4억 6천여만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또한 지역에 거주 중인 1년 이상 장기근속 보육교직원에게 월 2-3만 원의 장려수당, 5만 원의 명절수당을 지급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편다.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 4곳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2곳이 추가로 지정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정현을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무상보육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등 출산 장려 분위기 확충에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효 문화도시 익산' 발전방향 모색

## 익산시, 원광대서 '효 학술 세미나' 개최

'효 문화도시 익산'의 발전방향과 분야별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은 21일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익산시, 효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효 문화도시 익산' 발전을 위한 분야별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효행사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전대영 전대 한노인회 익산시지회장은 효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효 문화를 권장하는 분위기 조성

과 세대 별 통합에 대한 익산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최영돈 원광효도마을에서 진행된 구원장은 원광효도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효 인성교육의 방향과 효행스태이의 확장, 효 인성교육원 건립에 대해 연구 발표를 진행했다.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 연구소 백현기 부소장은 효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문화 콘텐츠 활용의 가능성과 타시도, 외국의 사례를 들어 보다 디테일한 방향으로 효 문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신은보 영산선학대학교

교수는 "효를 전통적 가치와 신념의 차원에서 나아가 교육의 분야로 확장시켜 효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에서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효 학술세미나를 바탕으로 현대적 효 실천의 다양성을 연구함과 동시에 효 문화도시 익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효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왔다.

광효도마을 박현자 이사장은 "효 인성과 효 실천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효 문화도시 익산의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염원한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간담회

익산시는 21일 원광보건대학교 WM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브랜드 가치 창조, 힐링 소통'이라는 주제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에 이어 간

담회, 청년 간 네트워킹의 시간이 진행돼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간담회는 시 관계자와 청년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가 현장에서

느낀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제안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이 만족하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참여 청년과 지속적인 소통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 군산시, 문화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사업 추진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군산시가 지역민의 차별화된 문화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사업 추진에 한창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내 옛 수협창고(금안동 소재)를 리모델링해 콘텐츠 창업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특화형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창업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사업은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2년간 총 9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1차년도 사업인 리모델링 및 장비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연내 완료로 목표로 진행 중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2차년도 지원 사업은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방송,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예술과 IT기술의 접목을 통한 실험예술 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제작지원, 입주공간 제공, 창업페스티벌 등 수요자 맞춤형 전주기 육성 지원이 가능하다.

관심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군산시청 홈페이지와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해 참가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로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책 읽어주는 예쁜 누나' 특강 개최

익산시립마동도서관에서는 오는 27일과 30일 2회에 걸쳐 '책 읽어주는 예쁜 누나'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27일 열리는 첫 번째 특강은 '영어동화책 활용법'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영어책을 중점으로 운영되는 세계동화작은도서관 정소영 관장이 직접 부모들에게 책 읽는 기술과 방법을 전달하며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서울에서 영어교육전문가로 유명한 정소영 관장은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어린이영어지도 전문교수와 GT리

그 교육컨설팅 교육담당을 역임했고 '라임잉글리시' 시리즈의 저자이다.

황선미 작가와 함께하는 30일 2차 특강은 '꿈은 이루어진다'를 주제로 지역 초등학생(3~6학년)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창작과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황선미 작가는 '마당을 나온 암탉', '나쁜 어린이 표', '들키고 싶은 비밀' 등 다양한 대표작을 가지고 유럽과 중국 등을 순회하며 특강을 열고 있다. 이번 특강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iksa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